

## 韓·中·英 '전/후' 표현의 대칭성과 비대칭성

曹京煥\*

&lt;목 차&gt;

1. 서론
2. 한국어와 영어의 '전/후'의 대칭성
3. 중국어 '前/後'의 비대칭성
4. 결론

## 1. 서론

한국어에 “앞으로 한 달 뒤에 만납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영어에도 “We're looking ahead to the following weeks.”라는 말이 있다. 이 문장들이 흥미로운 이유는 공간상에서 정반대를 나타내는 말인 ‘앞’과 ‘뒤’가 시간상에서는 모두 미래를 나타내는 데 전혀 모순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어의 ‘前/後’ 표현은 영어와 한국어의 그것과는 달리 비대칭성을 보이는데, 즉 영어와 한국어의 ‘전/후’ 표현은 모두 과거와 미래에 쓰일 수 있는 반면, 중국어는 ‘前’과 관련된 표현만이 과거와 미래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후’ 표현을 기준으로 한국어·중국어·영어간의 차이점을 고찰하고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한국어와 영어의 '전/후'의 대칭성

공간에 기원한 시간 은유가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일찍이 여러 학자들(Lakoff & Johnson 1980, Fillmore 1997)에 의해 논의된 바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a. In the weeks ahead of us .....  
앞으로 몇 주에.....  
b. That's all behind us now .....<sup>1)</sup>  
그것은 모두 지난 일이다.

- (2) a. In the following weeks .....  
다음 몇 주에 .....  
b. In the preceding weeks .....  
지난 몇 주에 .....

- (3) We're looking ahead to the following weeks.  
우리는 다가오는 몇 주 앞까지 내다보고 있다.

(Lakoff &amp; Johnson 1980/1995: 71)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미래라고 할지라도 (1a)에서는 미래가 앞(ahead)에 있는 반면, (2a)에서는 뒤(following)에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과거라고 할지라도 (1b)에서는 과거가 뒤(behind)에 있고, (2b)에서는 앞(preceding)에 있다. 심지어 문장 (3)에서는 미래가 ‘앞(ahead)’과 ‘뒤(following)’로 각각 표현되었다. 위와 같은 현상들은 한국어에서도 자주 접하게 된다.

\* 高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1) “in front of”를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은 ‘ahead’이며, ‘in back of’를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은 ‘behind’이다.”(Fillmore 1997: 45)

- (4) a. 앞이 캄캄하다.  
b. 뒤를 돌아본다.
- (5) a.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거짓이다.  
b. 먼저 가시오, 나는 뒤에 가겠다. (吉本— 1998: 224-226)
- (6) 앞으로 한 달 뒤에 만납시다. (박정운 1997: 85)

이상의 문장들에 대해서 Lakoff & Johnson(1980/1995: 74)은 이러한 시간 표현들은 모순이 아니며, 사실상 시간과 관련된 은유 [우리의 관점에서 시간은 앞에서 뒤로 우리를 지나서 간다]의 두 가지 하위 은유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는 [시간은 움직이는 물체이고 우리를 향해서 움직인다]라는 은유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이 정지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움직인다]라는 은유인데,<sup>2)</sup> Lakoff & Johnson(1980/1995)의 이러한 시간 은유 모형은 이후 吉本—(2002)과 Evans(2004)에 의해 좀 더 정교화 되었다.

우선 吉本—(2002)은 '시간'이라는 화살을 크게 '평행형'과 '역행형'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평행형'은 자아도 시간도 '과거 → 현재 → 미래'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인식·표현하는 형식이다. 아래 <그림1>에서 동그라미는 자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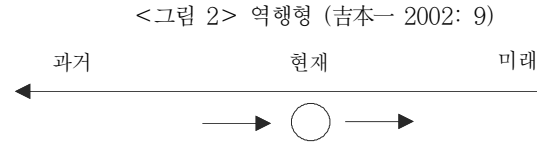


吉本—(2002:10)에 따르면 '평행형'은 시와 같은 문학적 언어에서만 가끔 보일 뿐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으므로, 본고의 논의에서는 제외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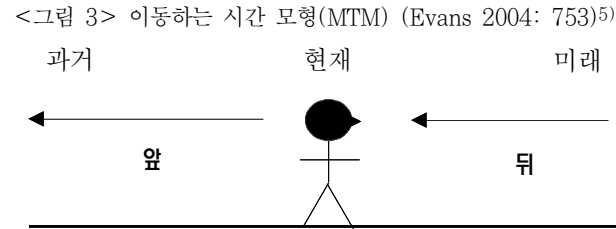
2) Lakoff & Johnson(1999/2005: 222)은 이러한 현상을 '이중성(duality)'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 원인을 '모습-배경 역전(figure-ground reversal)'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다시 다루고 있다.

록 하겠다.<sup>3)</sup>

다음으로 '역행형'이 있는데, 이 '역행형'에서 자아와 시간은 서로 마주보고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즉 자아가 '과거→현재→미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시간은 '미래→현재→과거'를 향해 움직인다.



吉本—(1998, 2002)은 이 '역행형'을 다시 '세계이동'과 '시간이동'으로 나누었는데, '시간이동'은 Evans(2004: 751)의 '이동하는 시간 모형(The Moving Time Model: 이후 'MTM'이라고 칭함)'에 해당되며, 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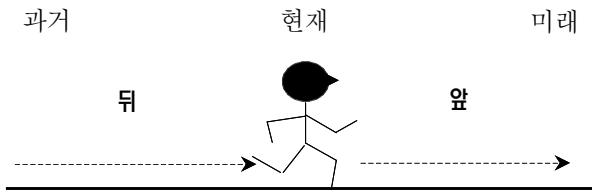
- 3) Lakoff & Johnson(1980/1995)의 논의에서도 吉本—(2002)이 말한 '평행형'은 사실상 제외되었으며, 이후 대부분의 학자들 역시 주로 '역행형'에 중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Yu(1998:125) 역시 '평행형'을 '경우 3(case 3)'이라 하여 특수한 경우로 처리하였다.
- 4)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역행형'의 기본적인 기제는 Lakoff & Johnson(1980/1995: 74)에 의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 5) Evans(2004)의 그림을 본문의 설명에 맞게 수정하였다. Lakoff & Johnson(1999/2005: 213)은 MTM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합성적 사상을 도출하였다.

자아의 위치	→	현재
자아 앞의 공간	→	미래
자아 뒤의 공간	→	과거
대상	→	시간
자아를 지나쳐 가는 대상의 운동	→	시간의 '경과'

Lakoff & Johnson(1999/2005: 222)에 따르면 MTM에서 자아는 '배경(ground)'이고, 시간은 배경과 관련해서 이동하는 '모습(figure)'이다. 시간이란 화살은 미래로부터 과거로 날아오므로, 현재에서 과거는 '앞'으로 표현되며, 미래에서 현재는 '뒤'로 표현된다. 따라서 예 (2)와 예 (5)의 표현들은 MTM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세계이동'은 Evans(2004: 753)의 '이동하는 자아 모형(The Moving Ego Model: 이하 'MEM'이라고 칭함)'에 해당되는데, 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4> 이동하는 자아 모형(MEM) (Evans 2004: 753)<sup>6)</sup>



Lakoff & Johnson(1999/2005: 222)에 따르면 MEM에서는 자아가 '모습'이며 시간은 '배경'이다. 즉 MEM에서 자아가 정적인 시간 위로 '과거→현재→미래'로 움직이므로, 과거에서 현재로는 '뒤'로 표현되고, 현재에서 미래로는 '앞'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예 (1)과 예 (3)의 표현들은 MEM에 기인한 것이다.<sup>7)</sup>

6) Lakoff & Johnson(1999/2005: 219)은 MEM 모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상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자아의 위치	→	현재
자아 앞의 공간	→	미래
자아 뒤의 공간	→	과거
자아의 운동 경로상의 위치	→	시간
자아의 운동	→	시간의 '경과'
자아가 움직인 거리	→	경과된 시간의 양

7) 여기에서 자아의 방향이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언급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언어들은 자아가 미래를 향해 있으나, 일부 언어들(예를 들면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지역에서 사용되는 아이마라어Aymara어)은 자아가 과거를 향하기도 한다(Evans & Green 2006/2008: 100). 한편 Alverson(1994)은 중국어도 아이마라어처럼 자아가 미래가 아닌 과거를 향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주장은 이후 여러 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Yu(1998)·Boroditsky(2001)·藍純(2005) 등 대부분의 학자들은 Alverson(1994)과 달리 중국어와 영어 모두 자아가 미

같은 문장 안에서 MTM과 MEM은 함께 쓰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앞으로 한 달 뒤에 만납시다.”에서 ‘앞으로’는 MEM에 근거한 것이고, ‘뒤에’는 MTM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한국어·영어와는 달리 중국어의 ‘前·後’는 비대칭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중국어의 ‘前’의 경우에는 MEM과 MTM에 모두 적용되나, ‘後’의 경우에는 MTM만 적용된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겠다.

### 3. 중국어 ‘前/後’의 비대칭성

먼저 중국어 ‘前’과 관련된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7) a. 前程    장래
- b. 前景    전경
- c. 前途    전도

- (8) a. 前天    그저께
- b. 前年    재작년
- c. 前人    옛사람

(Xu 2008: 188)

위의 예 (7)의 ‘前’은 미래를 표시하며, 예 (8)의 ‘前’은 과거를 표시하므로, 우리는 ‘前’과 관련된 표현에 MEM과 MTM이 모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後’와 관련된 표현을 보도록 하자.

를 향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Alverson(1994: 104)의 중국어 시간은유 모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아가 항상 ‘정적(stationary)’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 (9) a. 後天 모래
- b. 後年 내후년
- c. 後人 후손

(Xu 2008: 188)

위의 예 (9)의 '後'는 미래만을 표시하므로 우리는 '後'와 관련된 표현이 MTM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어·영어와 달리 중국어의 '後'는 MTM만이 적용될 수 있으며, MEM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는 일찍이 徐丹(Xu)에 의해 주목받은 바 있다.<sup>8)</sup> 徐丹은 처음(2003: 93)에는 중국어는 '前'의 용법을 '後'의 용법보다 중시하므로 그러한 비대칭 현상이 나타난다는 모호한 대답을 제시했었으나, 이 후(2008: 189)에는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등'은 일반적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예 (9)에서 '後'가 쓰인 표현들이 과거를 배제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시 말해 인간은 뒤로 걸을 수 없으므로, MEM은 이들 표현에서 선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필자로 하여금 또 다른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즉 Xu(2008)의 설명처럼 인간이 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後'와 관련된 표현에서 MEM이 적용될 수 없다면, 왜 한국어와 영어에서 '뒤'와 관련된 표현들은 여전히 MEM이 적용되는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Xu(2008)의 중국어 '後'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여겨진다.

필자는 이러한 '後'의 비대칭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시간 은유의 방향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먼저 '上'은 이른 시간(earlier time)을 나타내고, '下'는 나중 시간(later time)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Huang 1982: 160, Yu 1998: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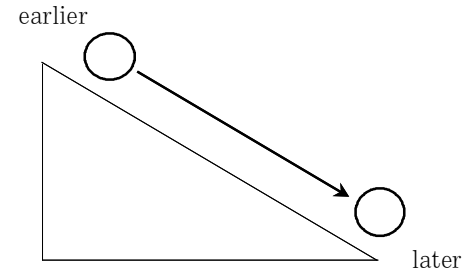
- (10) a. 上半天 / 上半月 / 上半年 / 上輩
- 오전   선보름   상반년   조상

8) Yu(1998: 108)는 '前/後'가 과거·현재·미래의 기간 또는 점들을 표현하기 위하여 대칭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가 중국어에서 '前/後'의 비대칭성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b. 下半天 / 下半月 / 下半年 / 下輩
- 오후   후보름   하반년   자손   (Yu 1998: 110)

Evans & Green(2006/2008: 102)은 Shinohara(2000: 5)의 모형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현상을 설명했는데, 즉 사물이 경사면 아래로 굴러갈 때, 그 사건의 더 이른 부분은 경사면 위에 있는 반면, 그 사건의 더 나중 부분은 중력으로 인해 더 아래에 있다는 것인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경사 모형(Shinohara 2000: 5)<sup>9)</sup>



필자는 이러한 경사 모형은 중국어에서 '上/下' 표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前/後'로도 확대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上到台', '下後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上'은 '前'과, '下'는 '後'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sup>10)</sup> 심지어 아래의 예들과 같이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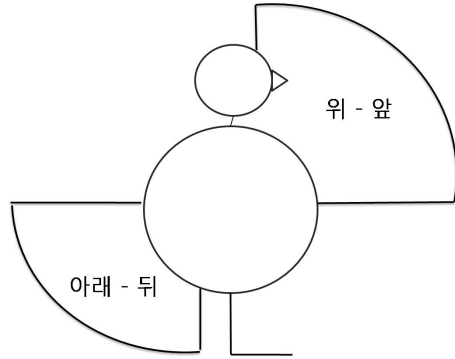
- (11) a. 前輩, 上輩    조상, 선배
- b. 前文, 上文    앞 문장
- c. 後輩, 下輩    후손, 후배
- d. 後文, 下文    뒷 문장           (Huang 1982: 160)

9) Evans & Green(2006/2008: 102)에서 재인용함.

10) 북경대학 CCL 코퍼스([http://ccl.pku.edu.cn:8080/ccl\\_corpus/](http://ccl.pku.edu.cn:8080/ccl_corpus/))에서 '上前台'는 모두 25개의 예가 발견된 반면, '下後台'는 2개의 예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下前台'나 '上後台'의 예는 한 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上'과 '前', '下'와 '後'가 깊은 연관성을 가지게 된 원인은 직접 인간으로서 우리의 시각 경험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즉 Heine(1994/2004)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범언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上/下'와 '前/後'의 관계(Heine 1994/2004: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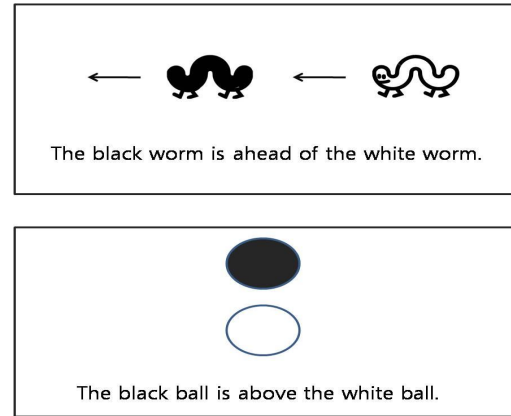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위/앞' 구역과 '아래/뒤' 구역은 동일한 근원 개념을 가지므로, 세계 언어에서 '위'와 '뒤', '위'와 '아래', '아래'와 '앞' 또는 '앞'과 '뒤'들을 만드는 경향은 존재하지 않는다(Heine 1994/2004: 107).<sup>11)</sup>

둘째, 영어와 중국어의 시간 개념에 관한 Boroditsky(2001)의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경험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그의 실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6명의 영어 모국어 화자와 20명의 중국어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sup>12)</sup> 아래와 같은 두 개의 공간 점화자극(priming)을 접하게 한 다음, 시간에 관한 질문("March comes earlier than April: true or false?")에 답하게 했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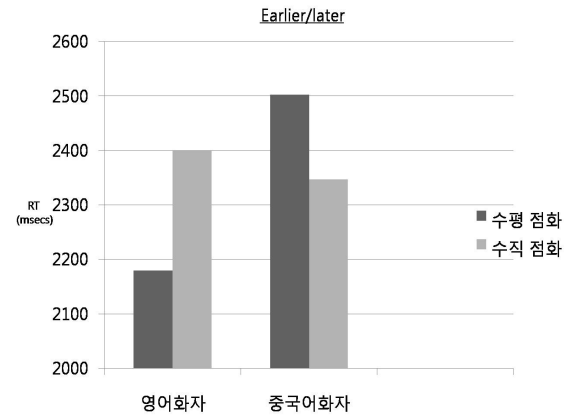
- 11) 이 말은 동일한 신체부위로부터 '위'와 '앞' 또는 '뒤'와 '아래'와 같은 표현들을 만들어 내는 강한 보편적인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 12) 실험 대상은 모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다. 또한 중국어 화자들은 모국어로 중국어를 가지며, 평균 12.8세에 영어를 배웠다. Boroditsky(2001: 887).
- 13) 이를 심리학에서는 '점화(priming)방법'이라고 한다. 즉 이는 점화자극(priming)과 목표자극(target)을 연이어 제시하는 조작을 통해, 점화자극이 제시되지 않는 조건보다 점화자극을 제시하는 조건에서 뒤따르는 목표자극에 대한 반응시간이 단축되는가의 여부를 탐색하는 방법이다. 점화자극으로 한 덩이의 글이나 그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기린'이라는 단어보다

<그림 7> 수평적 점화와 수직적 점화 (Boroditsky 2001: 886)



이상의 실험에서 Boroditsky(2001: 899)는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는데, 즉 순수하게 시간적인 'early/late' 질문을 받았을 때, 영어 모국어 화자와 중국어 모국어 화자가 상당히 대조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8> Boroditsky(2001: 889)의 실험 결과



'과일'이라는 단어를 본 직후에 '사과'라는 단어를 더 빠르게 판단한다. 이정모(2001: 282).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 화자들은 수직 점화자극보다 수평 점화자극을 제시받았을 때, 시간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좀 더 빨리 풀었으며, 중국어 화자들은 수평 점화자극(2503 msec)보다 수직 점화자극(2347 msec)을 접한 후에 시간에 관한 문제들을 좀 더 빨리 풀었다.<sup>14)</sup> 이러한 실험결과는 중국어에서는 시간 은유가 수평적 경향과 수직적 경향을 동등하게 나타낸다고 여긴 Yu(1998)·藍純(2005)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sup>15)</sup> 이로 볼 때, Boroditsky(2001)의 실험 결과는 Huang(1982)·Evans & Green(2006/2008)·Yu(1998)·藍純(2004)과 달리 경사 모형이 적어도 '上/下'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sup>16)</sup>

우리는 이제 왜 중국어의 '後'가 한국어·영어와는 달리 MEM이 적용될 수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한국어·영어는 시간 은유에 있어서 주로 수평적 경향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어는 시간 은유의 수직적 경향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어는 한국어·영어와는 달리 경사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Yu(1988)·藍純(2005) 역시 경사 모형(또는 수직모형)을 제시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경사 모형을 '上/下'에만 국한시켰는데, 이러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Yu(1988)·藍純(2005: 148) 모두 Boroditsky(2001)의 실험 결과와는 달리 중국어가 시간의 수직적 경향과 수평적 경향을 동등하게 반영한다고 보았으며, 둘째, 그들은 모두 중국어에 존재하는 '前/後'의 비대칭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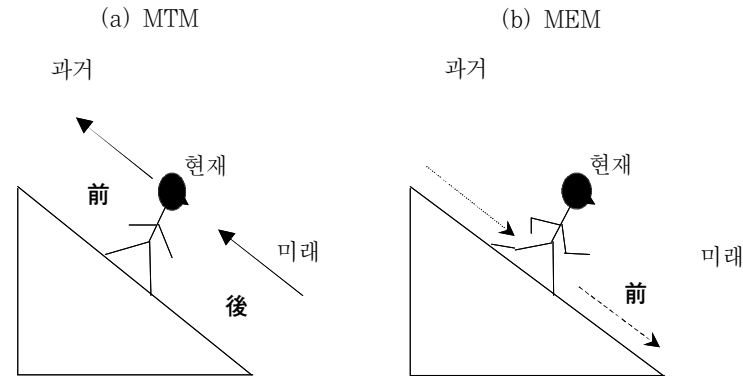
14) Boroditsky(2001: 891)는 이 밖에도 25명의 중국어-영어 이중 언어 화자들에 관하여 또 다른 실험을 하였는데, 이들 역시 모두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이며, 중국어를 영어보다 먼저 습득했다. 역시 수평 점화자극과 수직 점화자극을 제시하였으며, "March comes earlier than April: true or false?"와 같은 목표 질문에 답하게 하였다. 실험 결과, 시간을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편향은 영어를 나중에 배운 중국인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말한 실험 결과를 동일한 것이다.

15) 위의 결과에 근거하여 Boroditsky(2001: 890)는 영어 화자들과 중국어 화자들이 시간에 관해 달리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즉 영어 모국어 화자들이 시간을 수평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영어에서 시간을 말할 때 사용되는 수평적인 은유 선호에 의해 확인되며, 중국어 화자들이 시간을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은 수직적 은유들의 선호에 의해 확인된다고 하였다.

16) Boroditsky(2001: 894)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된 그 밖의 원인으로 문화적인 차이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필기 방향의 차이가 그러하다. 즉 영어는 전통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필기를 하는 반면, 중국어(한자)는 전통적으로 (비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만) 수직종렬로 필기를 한다.

그러나 필자는 Yu(1998)·藍純(2005)과 달리 Boroditsky(2001)의 결과에 근거하여 위에서 살펴보았던 경사 모형(<그림 5>)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

<그림 9> 중국어 '前/後'의 시간 모형



중국어의 MTM에서 시간은 중력에 상관없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반면, MEM에서 자아는 중력의 영향으로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갈 수 있다. 즉, 자아가 경사면을 내려오는 과정에서 뒤(後)를 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前'은 과거와 미래를 둘 다 표시할 수 있는 반면, '後'는 MTM에서만 미래를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사 모형에서 MTM과 MEM을 적용한다면 '後'의 비대칭성이 야기되는 원인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제 '後'의 비대칭성에 관한 Xu(2008)의 설명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자. Xu(2008: 189)는 인간은 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MEM이 '後'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만약 '後'의 비대칭성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경사지어진 MEM을 적용시킨다면, 이러한 설명은 보다 높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17) 더욱 이상한 점은 중국어에 관한 藍純(2005)의 경사 모형은 <그림 9b>와 같은 MEM만 출현하며, <그림 9a>와 같은 MTM은 출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설명은 분명 '前/後'의 비대칭성을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前/後'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 결론

Yu(1998: 137)는 영어와 중국어 사이에서 존재하는 시간 은유의 차이는 언어적인 단계에서만 존재할 뿐, 개념적인 단계에서는 같다고 하였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만 옳다고 할 수 있는데, 즉 영어와 중국어는 모두 MTM과 MEM을 가지며, 또한 자아는 미래를 향해 있다.<sup>18)</sup>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韓·中·英의 '전/후' 표현 간에 존재하는 대칭성과 비대칭성을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본고에서는 이를 Boroditsky(2001: 899) 등의 주장에 근거하여 한국어·영어와 중국어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의 다른 개념적인 체계로부터 발생한 차이라고 보았다. 즉 한국어·영어는 시간에 관하여 수평적인 은유 체계를 선호하는 반면, 중국어는 수직적인 은유 체계를 선호한다. 이는 반드시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와의 차이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같은 동양권이라도 한국어의 경우는 수직 모형보다 수평 모형에 더 적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자로부터 차용된 단어의 경우에는 여전히 중국어와 같이 수직 모형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전인(前人)', '전도(前途)'에서 '전(前)'은 과거와 미래 모두 나타내며, '후인(後人)', '후도(後圖)' 등은 모두 미래만을 표시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전/후' 표현만을 고려해본다면, 한국어는 영어와 중국어 사이의 과도기적인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 參考文獻 >

藍 純(2004), 《認知語言學與隱喻研究》,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徐 丹(2003), 《漢語句法引論》, 北京語言大學出版社.

18) Huang(1982: 160)·Yu(1998: 136)·藍純(2004: 166) 모두 영어는 중국어만큼 시간의 수직적 사상이 풍부하지 않음을 인식하였다.

- 吉本一(1998), <한국어의 시간 전후 표현>, 《우리말 연구》 제8집.  
\_\_\_\_\_(2002), <'시간의 화살'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담화와 인지》 제9권.  
박정운(1997), <앞으로 한달 뒤에 만납시다>, 《언어와 언어학》 제23집.  
이정모(2001), 《인지심리학》, 아카넷.  
임지룡(2001), <'시간'의 개념화 양상>, 《어문학》 제77집.  
Alverson Hoyt(1994), "Time and Time: Analysis of Data", *Semantics & Experience*, Johns Hopkins Univ.Press.  
Boroditsky Lera(2001), "Does language shape thought? Mandarin and English speaker's conception of time", *Cognitive Psychology* 43.  
Heine Bernd(1997), *Cognitive Foundations of Grammar*, 이성하·구현정(2004) 옮김, 《문법의 인지적 기초》, 도서출판 박이정.  
Huang shuan-fan(1982), "Space, Time and the Semantics of Lai and Qu", *Papers in Chinese Syntax* Crane Publishing Co.  
Evans Vyvyan(2004), "How we conceptualise time: language, meaning and temporal cognition", *Essays in Arts and Sciences*, XXXIII, No. 2.  
Evans V. & Green M.(2006), *Cognitive Linguistics*, 임지룡·김동환(2008) 옮김,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Fillmore Charles(1997), "Time", *Lectures on Dexis*, CSLI Publication.  
Lakoff G. & Johnson M.(1980), *Metaphor We Live*, 노양진·나익주 옮김(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광사.  
\_\_\_\_\_(1999), *Philosophy in the Flesh*, 임지룡 외 옮김(2005), 《몸의 철학》, 도서출판 박이정.  
Xu Dan(2008), "Asymmetry in the expression of space in Chinese", *Space in Language of China* Springer.  
Yu Ning(1998), "The Time as Space Metaphor",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 < 中文提要 >

很多時間表現都源於空間表現, 這可以說是一種跨語言現象。韓國語和英語中的前/後呈現出對稱現象, 而漢語中的前/後則呈現出不對稱現象。這是由於韓國語和英語具有時間

的水平傾向, 而漢語卻具有時間的豎直傾向。由此, 漢語適應於時間的傾斜模型, 用此模型我們可以解釋前/後的不對稱現象。

關鍵詞: 空間、時間、自我、隱喻、上/下、前/後、對稱、非對稱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8.27	2009.9.17	2009.10.7	2009.10.12	2009.10.30